

화이자 백신 확보 물량 100% 접종 이상 저온현상 피해현장 점검

장수군, 75세 이상 어르신 초고령자 순 완료... 3주 뒤 2차 접종

장수군이 지난 22~28일까지 장수한누리전당 산디관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75세 이상 어르신 및 노인시설 입소자에 대한 화이자 백신 1차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했다.

이번 접종은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종자를 확인한 75세 이상 어르신 3,960명 중 초고령자 순 1,350명에 대한 접종을 완료했으며, 확보된 화이자 백신 기준 100%를 접종했다.

장수군은 교통 이용과 거동이 불편한 75세 어르신들을 위해 읍·면별 버스를 운행해 예방접종센터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접종자 중 이상 반응을 보이는 주민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은 의료원 및 읍·면을 통한 접종자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들에 대한 2차 접종은 3주 뒤에 진행된다.

아울러 의료기관 및 약국종사자, 경찰 소방 등의 사회필수인력을 대상으로는 지역 2개 위탁의료기관에서 5월



장수군이 지난 22~28일까지 장수한누리전당 산디관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75세 이상 어르신 및 노인시설 입소자에 대한 화이자 백신 1차 예방접종을 완료했다.

초까지 백신을 접종 완료할 계획이다.

오는 6월까지 특정 대상자 접종을 완료하고, 7월부터는 만 18~64세 보통 성인의 접종을 시작해 11월까지 전 군민의 70% 백신예방접종을 완료할 방침이다.

장영수 군수는 "신속한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과 철저한 방역으로 코로나19로부터 군민들의 안전을 지키겠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군민들도 백신 접종 및 장수형 사회적거리 두기 지침 등 방역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김중훈 기획조정실장 일행 무주 방문

무주군은 지난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진 이상 저온현상(-2℃~4℃)으로 무주읍을 비롯한 6개 읍면 439농가에서 382.7ha 규모의 농작물 피해(28일 현재)가 발생한 가운데 28일 농림축산식품부 김중훈 기획조정실장과 전라북도 최재용 농축산식품국장 일행이 냉해 현장을 찾았다.

이날 방문은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규모 및 상황 확인과 그간의 조치사항 등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피해가 집중됐던 무풍면 사과와 인삼 농가에서 현장 설명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최원희 소장은 "지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이어진 따뜻한 날씨로 사과나무의 개화가 빨라진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가 더 컸다"며 "인삼 등 일부 농

작물에서도 입이 오그라들거나 줄기가 처지고 꺾임현상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달 말까지 각 읍면 산업팀을 통해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5월 11일까지 정밀조사를 통해 피해량을 확정지를 계획"이라며 "신속하고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무주군의 이번 피해는 새벽 기온 4℃ 이하에서 8시간 이상 서리가 내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사과 피해(꽃 압출머리 흑변 현상 / 337농가, 전체 피해농가의 76%)가 가장 컸으며 인삼등 다양한 작물에서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접수됐다. 한편, 무주군은 피해과원 방제 등 피해농작물 관리를 위한 현장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도시민 삼락농정 체험농장 조성 추진

덧밭과 친환경 영농체험학습장이 갖춰진 도시민 삼락농정 체험농장이 장수군에 들어선다.

28일 장수군에 따르면 이번 체험농장은 농촌인구 감소와 청년층 이탈, 농업인력 고령화의 가속화 추세 속에서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촌 힐링 체험과 영농 경험을 통한 도시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계남면 침곡리 233번지 일대에 1만 9,146㎡(약 5,801평) 규모로 조성되는 '도시민 삼락농정 체험농장'은 숙소동과 교육장, 다용도 실습실, 농자재 창고, 실습체험장 등이 들어서며 총 3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숙소동은 2인실 숙소 및 4~5인실 숙

소 등 총 6개실이 조성되며, 교육장은 100㎡(약 30평) 규모로써 장수 귀농학교 및 농촌 일자리 탐색교육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용도 실습실에서는 김치, 사과잼, 오미자청 등 장수군 농산물 요리체험, 실습체험장은 농산물 수확 체험 및 덧밭 가꾸기 등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다. 이와 함께 군은 도시민들이 장수군에서 장기간 머물며 귀농귀촌 생활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귀농인 임시거주 시설도 조성한다.

시설은 게스트 하우스 1개소, 단독주택 4개소 농자재 창고 1개소 및 실습체험장 등이 들어서며 총 11기구가 입주할 수 있는 규모다.

/장수=고관호 기자

황인홍 무주군수, 행안부 찾아 특별교부세 지원 요청

"군민 안전·삶의 질 향상·생활여건 개선 등 위해 꼭 추진해야"

황인홍 무주군수는 지난 27일 오후 행정안전부 교부세과를 방문해 ▲폐기물종합처리장 침출수 저장 저류조 설치(총 사업비 19억원 / 특교세 13억원)와 ▲무주군 여성활동센터 장비 보강(총 사업비 8억원 / 특교세 6억원), ▲안성면 공정지구 급경사지 수해피해 복구공사(총 사업비 15억원 / 특교세 10억원), ▲적성면 과목로교 재가설 공사(총 사업비 15억원 / 특교세 10억원) 추진에 필요한 특교세 총 39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침출수 저장 저류조 설치 사업비로 행안부에 요청한 특교세는 13억원으로 3,000㎡ 규모의 저류조 설치 사업비 총 19억원 중 미확보된 부분이다.

무주군 여성활동센터 장비 보강사업은 현재 리모델링(중축) 중인 여성활동센터에 직업훈련을 위한 컴퓨터, 방송음향, 조리실습 장비 등을 구입·설치하고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시설 구축과 통신주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무주군은 총 사업비 8억 중 6억원을 특교세로 요청했다.

안성면 공정지구 급경사지 수해피해

복구공사는 지난 3월 실시계획을 마치고 올 5월 착공에 들어가는 것으로 지난해 집중호우 시 주거지 주변(공정지구 및 봉산마을) 주민 150여 명 거주중) 급경사지 사면이 붕괴돼 낙석 및 추가 붕괴 위험이 산재한 곳을 복구하는 공사다. 복구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15억원으로 무주군은 이중 10억원을 특교세로 요청한 상태다.

적성면 과목로교 재가설공사는 주민(30농가) 안전과 안정적인 영농환경 확보를 위해 교량 교각부 균열과 파손 등 노후가 심한 교량을 재가설하는 것으로 무주군은 특교세 10억 지원을 건 의했다.

이날 행안부 교부세과 황순조 과장과 김일 특별교부세 팀장을 만난 자리에서 황인홍 군수는 "지원을 요청한 사업 모두가 군민안전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생활여건을 개선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들"이라며 "무주군의 열악한 재정 상황 속에서 꼭 추진을 해야 하는 만큼 사업 면면을 잘 헤아려서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강조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의회, 백신접종 체계 점검

무주군의회(의장 박찬주)가 코로나19 백신접종 체계를 점검하고 안전한 예방접종에 철자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무주군의회는 지난 27일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보건행정과 장으로부터 예방접종 전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접종자 동선, 백신냉장고를 비롯한 접종시설,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백신화보상황 등에 대해 질의했다.

무주군은 28일부터 75세(1946년생)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하고자 예체문화관에 시설을 구비하고 사전준비를 마쳤다. 접수부터 접종, 이상반응 관찰을 위한 대기실 등을 갖추고 사전 예행연습도 진행했다.

의원들은 이곳에서 백신관리시설을 비롯한 예방접종 준비가 잘 됐다고 평가하고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났을 때 신속·정확한 대처와 이송대책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농협진안군지부·부귀농협 청년·신규조합원 교육

농협 진안군지부(지부장 정미경)와 부귀농협(조합장 김영배)은 지난 27일 농협안성교육원과 부귀농협 회의실에서 청년조합원 증대와 조합사업 이해를 위해 '찾아가는 청년·신규조합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찾아가는 청년·신규조합원 교육은 코로나19로 안성교육원 집합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라 전북의 92개 농협 중 유일하게 부귀농협이 선정되어 진행됐다.

이날 교육은 부귀농협 청년·신규조합원 50명을 대상으로 진안군 농림축산분야 지원사업 안내와 협동조합의 이해, 청년·신규조합원의 역할 등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줌으로써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을 받은 청년·신규조합원들은 진안군과 농협에서 영농규모와 연령에 맞춰 다양한 지원 사업을 새롭게 알게 됐고, 특히, 농협조합원에 대한 혜택(영농, 복지지원 등)과 청년농부사관학교운영에 대한 정보를 통하여 남다른 아이디어와 열정이 생겼으며, 새로운 꿈을 꾸는 청년·신규조합원들의 밝은 내일과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도록 부귀농협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읍 의용소방대

코로나19 대응 유공 표창

무주읍 의용소방대(남자대장 김용찬, 여자대장 유익목)가 코로나19 대응 유공 단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장관표창을 받았다.

무주군에 따르면 무주읍 의용소방대는 남녀 7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해 코로나19가 발생한 직후부터 터미널과 전통시장, 야외 생활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독을 지원했으며 무주읍 소재 초·중·고 4개 학교에 대해서도 매일 2~3회씩 방역활동을 지원하는 등 군민 안전을 도모해 왔다.

무주읍 의용소방대 김용찬 대장은 "앞으로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이웃과 지역을 위한 코로나19 방역에 앞장 서 모두의 일상을 되찾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 지혜의 숲 도서관 건립 준비위원회 발대식

진안군은 28일 군청 상황실에서 위원과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안 지혜의 숲 도서관 건립 준비위원회' 발대식 및 건립 타당성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진안 지혜의 숲 도서관 건립 준비위원회(이하 '도서관 건립 준비위원회')는 민선 7기 공약사업인 진안 지혜의 숲 도서관 건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 중심으로 구성된 위원회다.

도서관 건립 준비위원회는 군립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 공론화하고 군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진안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독서 문화공간 조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된다.

이날 발대식은 위촉장 수여, 임원선출, 향후 계획과 운영방안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발대식에 이어 진안 지혜의 숲 복합문화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가 이어졌다. 용역 수행기관인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은민균 책임연구원)은 복합문화센터 건립의 필요성, 진안군 현황 및 국내외 시설 사례검토, 사업추진 체계 및 계획 등을 보고했다.

군은 진안 지혜의 숲 복합문화센터를 공공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를 복합화해 건립함으로써 독서문화 공간과 생활문화 활동공간을 군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